




<div>  <div> <div>해양수산부</div> <div> <div>보</div> <div>도</div> <div>자</div> <div>료</div> </div> </div> <div> <div>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div> <div>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div> </div> </div>			
보도 일시	2023. 3. 2.(목) 조간 2023. 3. 1.(수) 11:00	배포 일시	2023. 2. 28.(화) 오후
담당 부서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남우진 (044-200-5013)
		담당자	사무관 나유성 (044-200-5017)

3월의 해양수산 어벤저스를 소개합니다

- 이달의 수산물·어촌여행지·해양생물·등대·해양유물·무인도서 선정 -

- ①이달의 수산물로 도다리와 송어를, ②어촌안심여행지로 경남 하동 대도마을과 인천 옹진 이작마을을, ③해양생물로 바다선인장을, ④등대로 제주 비양도 등대를, ⑤해양유물로 인천항 항박도를, 그리고 ⑥무인도서로 주도를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도다리, 송어

	
도다리	송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3월을 맞아 이달의 수산물로 도다리와 송어를 선정했다.

봄이면 생각이 나는 도다리는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낮아 담백한 맛을 내며, 제철 쑥을 넣어 국을 끓이면 쑥의 진한 향과 어우러져 봄철 별미가 된다.

도다리는 생김새가 비슷한 광어와 헛갈리기 쉬운데, 정면에서 볼 때 눈이 오른쪽에 있으면 도다리, 왼쪽에 있으면 광어라고 기억하면 구분하기 쉽다.

봄철 연안으로 돌아오는 송어는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고소한 맛과 식감이 일품이다.

송어는 회로 즐겨 먹지만, 송어살을 얇게 잘라 고기, 두부 등 소를 넣어 송어만두로 만들어 먹으면 송어의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함께 즐길 수 있으므로 드셔보시길 권한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제철을 맞아 맛과 영양이 풍부한 도다리와 송어로 따뜻하고 건강한 봄을 맞이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②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 경남 하동 대도마을과 인천 옹진 이작마을



대도마을 전경

이작마을 전경

해양수산부는 자연이 아름답고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는 경상남도 하동군 대도마을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작마을을 3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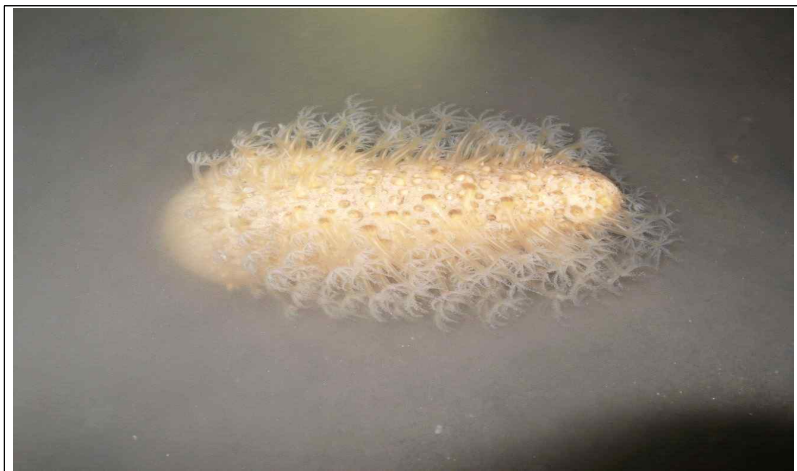
먼저,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한 대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은 대도(大島)에 위치한 마을로 하동군 노량항에서 1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대도는 낚시 체험과 관광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이 방문하기 좋다. 대도 마을에서는 콘도형 좌대와 뗏목형 좌대가 있어 감성돔과 불락 등 월척을 노릴 수 있다. 또한 푸른 바다 옆,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바다와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마을 곳곳에는

사진으로 남기기 좋은 아기자기한 조각상이 있어 추억을 만들기에 좋다. 여행을 마친 후에는 어촌계가 최근 새로 연 식당에서 해물탕과 생선구이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섬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작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추천한다. 인천항연안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약 2시간 정도 이동하면 도착하는 이작마을에는 폴등이란 모래섬이 있어 신비롭고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해양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에서는 해양 생태탐방로 산책과 등산이 가능하다. 악천후에도 실내에서 폴등 만들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어촌마을이며, 주요 먹거리로는 바지락, 굴, 전농어 등이 있다.

김원중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봄이 시작되는 3월,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하동군 대도마을과 옹진군 이작마을을 소개하고자 한다.”라며, “푸른 바다와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어촌 여행지에서 여유를 만끽하며 추억을 쌓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③ 이달의 해양생물 - 바다선인장



바다선인장

해양수산부는 3월의 해양생물로 바다선인장(*Cavernularia obesa*)을 선정하였다. 산호류에 속하는 바다선인장은 전 세계적으로 약 20여 종이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단 1종만이 보고된 해양동물이다.

바다선인장의 속명인 '*Cavernularia*'는 '땅속에 서식하는 곤봉 모양의 생물'이라는 뜻을 가진다. 약 10~15cm 내외의 곤봉형 몸체는 옥수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먹이활동을 위해 온몸에 둘러진 촉수를 확장시키면 가시 돋친 선인장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인도-태평양지역의 열대 및 온대지역에 주로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서남해안의 모래갯벌에서 관찰할 수 있다. 낮에는 땅속에 숨어있다가, 밤이 되면 땅 위로 나와서 촉수를 펴고 먹이활동을 한다.

바다선인장은 외부자극을 받으면 녹색 형광물질을 분비하여 발광하는 특징이 있어, 밤에 갯벌 주변 바닷속에서 파도에 부딪혀 형광빛을 내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기도 한다.

과거에는 모래갯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조사 결과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바다선인장은 우리바다에 서식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바다생물”이라며, “앞으로도 바다 선인장과 같은 우리바다의 숨겨진 해양생물들을 알리고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바다선인장을 비롯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달의 등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양도 등대



해양수산부는 2023년 3월의 등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비양도 등대'를 선정하였다. 이 등대는 매일 밤 6초마다 흰색 불빛을 깜빡이며 제주 한림항과 비양도 사이를 오가는 선박과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1955년 9월 처음으로 불을 밝힌 '비양도 등대'는 높이가 5.1m로 다른 등대에 비해 짧고 뚱뚱하게 생겼다. 이 등대가 위치한 비양도는 '날아온 섬'이라는 뜻으로 제주에서 가장 마지막 화산이 분출(1002년, 1007년)되어 형성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화산활동 시기가 기록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비양도는 면적이 0.5km²인 작은 섬으로 한림항에서 배를 타고 약 15분 걸리며 2~3시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다. 섬 안의 해안도로를 따라 걸으면 기암괴석을 볼 수 있는데, '애기 엷은 돌'과 '코끼리 바위'가 대표적이다. 비양봉을 오르는 길에 있는 대나무 숲 터널에서 이 섬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을 수 있으며, 정상에서는 '비양도 등대'와 한라산 및 협재해수욕장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와 특색있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월 '이달의 등대'를 선정해 왔다. 지난 2월에는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설악항 방파제 등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연말에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이달의 해양유물 - 인천항 항박도(港泊圖)



1956년 | 72.6×106cm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 2022년 한상복 기증

해양수산부는 3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1956년 대한민국 해군 수로국에서 발행한 인천항 항박도*를 선정했다.

* 항박도는 5만 분의 1 미만의 대축척 지도로 항만·어항·수로 등이 자세히 조사된 항해용 해도임

해도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보이지 않는 바다 속 수심, 암초, 해안선, 항만시설, 등대와 부표 등의 항해 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로 표시한 지도를 의미한다. 해도에는 뱃길을 안전하게 알려주는 정보뿐만 아니라 배가 정박할 때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 최근에는 바다에서도 항해용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해도를 많이 사용하면서 종이해도가 점차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달의 해양유물로 선정된 인천항 항박도는 해군 수로국에서 1952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최초로 발행한 인천항 해도를 바탕으로 1956년까지 누적된 조사자료들을 종합하여 재간행한 것이다. 축척 1:15,000으로 제작된 해도로 당시 인천항의 해안선, 수심 및 연안의 지형정보와 함께 주요지명, 항로 등의 다양한 정보가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광복 이후 우리 손으로 제작한 초창기 현대 해도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 해도는 한상복 前국립수산진흥원 서해연구소장이 기증한 자료인데, 기증자는 해양학자로서 평생 연구목적으로 수집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인천항과 인천의 변화상을 살필 수 있는 각종 지도와 해양·수산 연구서 등 350점의 자료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해양유물을 수집하여 전국민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우리나라 해운물류, 항만의 발전 과정을 전시에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근현대 해운·항만의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고 있으며, 2021년부터 매월 1점의 해양유물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달의 해양유물에 소장유물을 소개하거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5232)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⑥ 이달의 무인도서 - 주옥 같은 하트섬, 주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3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위치한 주도(珠島)를 선정하였다.

주도는 고도 약 26m, 길이 약 170m이며, 면적 17,355㎡인 무인도서로 완도항에서 약 0.1km 떨어진 곳에 있어 부둣가에서도 쉽게 섬을 조망할 수 있다. 주도는 전체적인 섬의 생김새가 둥근 구슬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현재는 오랜 기간 침식으로 인해 상공에서 보면 하트 형상으로 보여, 하트섬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주도는 참식나무, 돈나무, 사스레피나무, 붉가시나무, 메밀жат밤나무, 광나무, 다정큼나무, 가마귀쪽나무, 감탕나무, 빗죽이나무 등 137여 종으로 구성된 울창한 상록수림이 섬을 덮고 있어 사시사철 푸르게 보인다. 주도의 상록수림은 원시림 상태를 방불케 할 만큼 보존이 잘 되어 있어, 1962년 「천연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해안에는 해안무척추동물인 갈색꽃해면말미잘, 군부, 갈고둥, 좁쌀무늬 총알고둥, 큰뿔고둥, 애기삿갓조개, 보말고둥 등이 출현하고, 해조류인 참깃털말, 대마디말류, 참홀파래, 애기파래, 구멍갈파래, 납작파래, 바위수염, 지충이 등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주도는 조선 시대에 섬 일대가 봉산으로 지정되어 벌목이 금지되었고 현재는 상록수림의 보호를 위해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주도를 관찰하는 색다른 방법으로 완도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도 있다. 완도가 사랑하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주도와 신지대교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주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남우진 (044-200-5013)
		담당자	사무관	나유성 (044-200-5017)
<수산물>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김윤이 (044-200-5447)
<어촌마을>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44-200-5650)
		담당자	사무관	류지호 (044-200-5651)
<해양생물>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최재용 (044-200-5315)
<등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정준호 (044-200-5870)
		담당자	사무관	조용훈 (044-200-5878)
<해양유물>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용태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우민아 (044-200-5232)
<무인도서>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책임자	과 장	임채호 (044-200-5350)
		담당자	사무관	장민철 (044-200-5355)



참고 1 수산물 성분 분석 정보

3월

이달의 수산물

도다리

Finespotted Flounder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은 도다리는

제철인 썩과 함께 도다리 썩국으로 먹으면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출처 : 국립수산물연구원 (100g 기준)

열량	수분	지방	단백질
(Calorie)	(Moisture)	(Fat)	(Protein)
78 kcal	80.3 g	0.2 g	17.6 g

회분	칼슘	인	철
(Ash)	(Calcium)	(Phosphorus)	(Iron)
1.4 g	22 mg	184 mg	1.1 mg

라이신	류신	레티놀	베타인류
(Lysine)	(Leucine)	(Retinol)	(Betaine)
1,533 mg	1,447 mg	21 ug	40 mg

20230301

3월
이달의 수산물



숭어

Flukehead Mullet



조식시대 몸집에게도 친상한 숭어는
풍긋하고 고소한 맛으로 탕, 회, 담밥 등으로 즐길 수 있다.

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00g 기준)

열량	수분	지방	단백질
(Calorie)	(Moisture)	(Fat)	(Protein)
107 kcal	74.1 g	1.5 g	21.7 g

회분	칼슘	인	철
(Ash)	(Calcium)	(Phosphorus)	(Iron)
2.3 g	42 mg	217 mg	1.0 mg

니아신	아르기닌	EPA	DHA
(niacin)	(Arginine)	(Eicosapentaenoic acid)	(Docosahexaenoic acid)
3.7 mg	1,104 mg	128.6 mg	232.1 mg

20230301

참고 2

이달의 수산물 포스터

魚食 어식백세 100세

3월 이달의 수산물

지금 먹어야 더 맛있는
싱싱한 제철 수산물
도다리와 숭어



숭어



제철 맛은 숭어!

단백질이 풍부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봄의 전령사 숭어

도다리



미리 만나는 봄맛! 봄도다리!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한 맛으로
봄을 알리는 봄도다리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이달의 어촌 여행지

2023년 3월

지리산과 섬진강의 자연이 있는
대도어촌체험휴양마을(경상남도 하동군)

대도마을은 체험과 관광지가 다양한 여행지이다. 우선, 낚시로 유명한 마을답게 콘도형, 멧목형 최대가 여러 개 있으며 강성들과 불락을 잡을 수 있는 낚시체험은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바다 옆을 걸을 수 있는 해안산책로, 마을 곳곳에 있는 조각상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기에 좋다.

체험: 낚시체험

먹거리: 바지락, 굴

주변 관광지: 이순신공원, 연도교, 발간봉차, 해안산책로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98 ☎ 070-4208-8100 🌐 http://대도어촌체험마을.kr

신비로운 모래섬, 풀등이 아름다운
이작어촌체험휴양마을(인천광역시 옹진군)

이작마을은 해양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에 있어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마을이다. 썰물 때 나타나는 모래섬인 풀등은 신비롭고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섬내에서는 풀등 만들기 키트를 할 수 있고, 실외에서는 해양생태탐방로 체험이 가능하다. 먹거리로는 바지락, 굴, 건농어가 있어 눈과 입 모두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체험: 풀등 만들기 키트, 해양생태탐방로 체험

먹거리: 바지락, 굴, 건농어

주변 관광지: 풀안 해수욕장, 풀등, 해안산책로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소이작로 11 ☎ 010-8981-8048 🌐 http://이작어촌체험마을.kr



FIPA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켜주세요!!
이달의 해양생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살아가는 국민의 나라

바다를 밝히는 노란 무드등

산호류에 속하는 바다선인장은 전 세계적으로 약 20여 종이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단 1종만이 보고된 해양 동물이다. 바다선인장의 속명인 'Cavernularia'는 '땀속에 서식하는 곤봉 모양의 생물'이라는 뜻을 가진다. 약 10~15cm 내외의 곤봉형 몸체는 옥수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먹이활동을 위해 온몸에 둘러진 촉수를 확장시키면 가시 돋친 선인장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바다선인장은 외부 자극을 받으면 녹색 형광물질을 분비하여 발광하는 특징이 있어, 밤에 갯벌 주변 바닷속에서 바다선인장이 파도에 부딪혀 형광빛을 내는 아름다운 장관을 경험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모래갯벌 주변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조사 결과 개체수의 감소가 확인되어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분포 및 생태적 특성

인도-태평양 지역의 열대 및 온대지역에 주로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서남해안의 모래갯벌 최하부 즉, 바닷물이 만나는 경계선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낮에는 땅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땅 위로 나와서 촉수를 펴고 먹이활동을 한다.



Cavernularia obesa

우리가 보호해야 할
바다선인장



사진출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참고 5 이달의 등대 포스터

2023년
03월
이달의 등대

다시 도약해 대한민국
함께 걷는 국민의 나라

정령(政令)대상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023.03



제주 서쪽, 섬 속의 섬에 위치한

비양도등대

비양도등대

비양도는 제주도 서쪽 한림읍에 위치한 섬으로, 인근 합제해수욕장에서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 비양도는 고리 시대 화산 폭발로 생겼으며, 제주에서 가장 마지막에 생긴 섬이다. 비양도는 면적은 0.06㎡인 작은 섬이며 타워형 옰을 형태로 2~3시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트레킹을 하기 위해 찾는다.

비양도에서 가장 높은 곳인 비양봉은 약 30분이면 오를 수 있는데, 이곳에는 한라산을 비롯해 합제해수욕장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와 해안 등대가 있다. 이 등대는 '비양도 등대'로 제주 북동쪽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중요한 항로표지 시설이다. 6층에 한 번, 흰색 불빛을 반짝이며 한림항과 비양도 사이를 오가는 선박과 육지 방향에서 한림항 쪽으로 입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비양도를 걷다 보면 조용한 어촌마을과 함께 북쪽 해안의 용암기둥인 '해기 업은 돌'과 '코끼리 바위' 등 다양한 기암괴석과 우리나라 유일의 염습지인 '밀랑못'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비양도에만 분포하고 있는 비양나루(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48호)를 찾아보는 것도 비양도를 여행하는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주변 관광지

- 비양봉
- 해기 업은 돌 / 코끼리바위
- 밀랑못
- 합제해수욕장
- 한림굴염
- 금능해수욕장
- 금능서목원
- 금능수공원

주변 먹거리

제주 불소라의 가장 큰 특징은 튀어나온 돌이다. 불소라가 서식하는 곳은 주로 강한 파도가 치는 앞바다이기 때문에, 거친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바위 사이에서 약삭잡이 버티기 위하여 돌기가 불처럼 튀어나 있다. 불소라는 투박한 겉대기를 쓰고 있지만 속은 부드러운 알갱이가 숨어있다. 제주 불소라의 가장 큰 특징은 양식이 되지 않아 오직 자연산본이며, 열량과 지방함량은 낮고 단백질과 타우린 함량은 높아 피로 회복에 좋다.

이달의 등대 이벤트
2023. 1. 1. ~ 12. 31.

1/ 불로그 포스팅 이벤트
포스팅하고 여행경비 지원받자!
· 이달의 등대 방문 후기 포스팅 중 우수 포스팅을 선정하여 국내 등대 탐방 경비 지원금(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각 50만 원 상당, 5명 내외)

2/ 모바일 등대스탬프 투어 2023 시리즈 오픈!
스마트폰에 2019~2023 시리즈 '이달의 등대'를 모아보세라!
· 50만포인트 스탬프를 찍은 참가자와 스탬프 투어 12개소 완주자에게 등대 기념품 증정

* 참여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바다 홈페이지 및 스탬프 투어 해설마라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6 이달의 해양유물 포스터

함께 배워요
이달의 해양유물

03

인천항 항박도

港泊圖



1956년 | 72.6×106cm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 2022년 한상복 기증



해양유물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리 해양 역사의 소중한 이야기와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양유물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기증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32

기증대상
해역사, 해양교류(해운·항만), 해양예술, 해양민속, 해양과학, 해양산업, 각종 어업·항해도구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자료

3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1956년 대한민국 해군 수로국에서 발행한 인천항 항박도를 선정했다.

이 항박도는 해군 수로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최초로 발행한 1952년도 인천항 해도를 바탕으로 1956년까지 누적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다 정확하게 간행한 해도이다. 축척 1:15,000으로 제작되어 당시 인천항의 해안선 등 연안의 지형정보와 함께 주요지명, 항만시설과 항로 등의 다양한 정보가 정밀하게 기록된 해도이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찾은 이후 우리 손으로 제작한 초창기 현대 해도로서 의미가 있다. 이 해도는 한상복 前국립수산진흥원 서해연구소장의 기증자료이다. 기증자는 평생 연구목적 등으로 수집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인천항과 인천의 변화상을 살필 수 있는 각종 지도와 해양·수산 연구서 등 276건 350점의 유물을 기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며 우리나라 해운물류와 항만의 발전 과정을 전시에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근현대 해운·항만의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는다.

* 항박도는 5만 분의 1 미만의 대축적 지도로 항만·어항·수로 등이 자세히 수록된 항해용 해도이다.

국립인천
해양박물관

다시 도약해 대한민국
함께 걷는 국민의 나라

해양수산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주민의 나라

해양수산부

영토의 시작,
생태의 공간의 보고

무인도서
2023년 3월
이달의 무인도서

완도가 품은
푸른 하트섬

주도

상록수림의 완충을 위해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

완도는 고도 약 26m, 길이 약 170m이며, 면적 17,355㎡인 무인도서로
완도항에서 약 0.1km 떨어진 곳에 있어 부둣가에서도 쉽게 섬을 조망할 수 있다. 주도는
전체적인 섬의 생김새가 둥근 구슬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현재는
오랜 기간 침식으로 인해 상공에서 보면 하트 형상으로 보며, 하트섬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주도는 울창한 상록수림이 섬을 덮고 있어 사시사철 푸르게 보인다. 섬의 상록수림은
원시림 상태를 완벽하게 할 만큼 보존이 잘 되어 있어, 1962년 '완연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섬에 서식하는 상록수림은 137여 종으로 참식나무,
둔나무, 시스레피나무, 불기시나무, 매말갯벌나무, 경나무, 다정콩나무, 기마귀죽
나무, 감탕나무, 빗꽃나무 등이 있다.

해안에는 해안무척추동물인 갈색꽃해변달미잘, 군부, 갈고동, 톱살무늬줄고동,
관돌고동, 예기삿갓조개, 보말고동 등이 출현하고, 해조류는 왕깃털말, 데마디말류,
참줄파래, 예기파래, 구렁길파래, 남작파래, 바위수염, 지층이 등이 다양하게 서식
한다.

주도는 조선 시대에 섬 일대가 봉산으로 지정되어 별목이 금지되었고 현재는 상록
수림의 보호를 위해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출입이 제한된다.

주도를 관찰하는 색다른 방법으로는 완도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것이다. 완도가 자랑
하는 디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주도와 신지대교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주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mof.go.kr
blog.naver.com/koreamof
www.facebook.com/mofkor/photos

전라남도 완도군